

# “엄마의 꿈·사랑, 엄마그릇에 펼쳤죠”

류미숙 작가가 동구 소태동 갤러리 생 각상사 초대전 ‘엄마의 밥상’을 열고 있다. 지난 17일 개막한 전시는 오는 10월 14일까지 이어진다.

표창사 옆 유명한 닭요리 식당을 했던 작가의 어머니는 5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3남매를 키워내고, 손자를 키워내고, 자식들의 꿈을 응원했다. 손에 물 마를 날 없이 당신의 꿈은 접은 채...

4년 전 뇌출혈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엄마의 남겨진 그릇들을 보며 상실감에 빠졌던 작가는 엄마의 그릇에 엄마의 꿈과 자신의 꿈을 담아 그리기 시작한다. 등산도 하고 싶고, 수영도 하고 싶고, 암벽 등반도 하고 싶었다던 엄마의 꿈은 캔버스와 그릇 위에 오롯이 펼쳐진다.

엄마라는 존재의 상실을 정리하며 탄생한 작품들로 지난 4월 전남도청 운선도홀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던 작가는 5개월 만에 두 번째 전시를 선보인다. 30여점의 작품들에 꿈과 행복, 기다림과 자유를 담았다.

‘엄마의 꿈’ 연작에는 용기종기 무리를 지어 모여있는 닭과 병아리, 스킨스쿠버, 패러글라이딩, 등산 등 엄마가 평소 꿈꿨던 행복들이 가득하다. 간혀있지 말고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라던 엄마의 꿈은 자식들 뒷바라지로 충분히 대리만족이 됐을까.

‘행복’ 연작에는 등지를 상징하는 원형 바탕에 엄마가 좋아했던 꽃과 나비의 평화로운 조화와 날갯짓이, ‘딸의 바람’ 연작에는 옛 시절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하는 엄마의 건강한 모습들이 흑백사진처럼 펼쳐진다.

‘엄마의 사랑’ 연작에는 엄마가 허리춤에 늘 차고 계시던 낡은 전대와 엄마의 지갑을 중심으로 그릇에 그려진 가족의 모습들이 방울방울 맺혀있다. 엄마의 전대와 지갑에 꽂혀 있는 지폐가 작가의 작품 의도를 한눈에 보여준다.

카드매출이 입금되던 엄마의 통장과 엄마 사진의 콜라주, 식당에서 쓰던 화투를



류미숙 작가

갤러리 생 각상사 초대전 류미숙 작가 ‘엄마의 밥상’ ‘가족 위한 사랑 확인 아버지 소품 작업도 계획’



갤러리 생 각상사 전시 중 ‘엄마의 사랑’ 연작.

그림으로 덧입혀 떡 그릇에 배열한 가족 이야기 등 다양한 소재의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주흥 갤러리생각상사관장은 “만나기는 어렵지만 따뜻한 엄마의 사랑과 함께 가족과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전시를 마련했다. 찬란한 색채로 엄마의 부재를 역설적으로 담아낸 작가의 ‘엄마의 밥상’에 마주해 보실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작가는 내년 5월에는 어버이날과 맞물려 서울 종로구 인사아트센터에서 3번째 개인전을 가질 계획이다. 내년 전시에는 장갑이나 장화, 등산갑 등 아버지의 소품도 작업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가뭄이었던 작품들이 밖으로 나와 보여 기쁩니다. 전시를 하며 앞으로 방향에 대한 계획도 세워집니다. 열심히 작업해 새로운 작품들로 감동을 선사하고 싶어요.” /이연수 기자

## 쌍암공원에 ‘별밤 미술관’ 개관

광주 최초 비대면 상설전시관 개관했다. 광주 최초의 비대면 상설 전시관인 ‘별밤 미술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문화예술시설이 임시 휴관 중인 상황에서 ‘별밤 미술관’을 지난 17일 쌍암공원에

개관했다. 광주 최초의 비대면 상설 전시관인 ‘별밤 미술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문화예술시설이 임시 휴관 중인 상황에서 예술인 활동을 장려하고 비대면 전

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도심 속 찾아가는 미술관이다.

특히 ‘별밤 미술관’이라는 명칭답게 밤에 열리는 야간 특화 전시관으로 운영, 자연과 예술작품이 한데 어우러져 지역의 야간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산구는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휴식공간을 생활

공간 가까이에 마련한다는 취지로 미술관을 열고, 매일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관 기념 초대전으로 송필용 작가의 ‘꿈은 소리는 소리이다’를 시작으로, 10월 이호국 작가, 11월 이이남 작가의 작품이 차례로 전시된다. 미술관은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된다. /오지현 기자

## “행복 바이러스 전달되길”

박희정 작가, 갤러리 S서 ‘복덩이 바나나-그림일기’ 전

지난해 첫 번째 개인전에서 바나나를 주제로 자유분방한 평면 회화와 조각 작품을 선보였던 박희정 작가가 두 번째 전시를 동구 예술의 거리 갤러리 S에서 선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개막해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복덩이 바나나-그림일기’ 전이다.

조각 13점, 회화 17점 등 총 30점의 작품에는 어김없이 바나나가 등장한다. 미소 짓게 하는 다양한 모습의 바나나는 ‘주변의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행복의 부적’이라는 게 작가의 설명이다.

“코로나19로 온 나라의 경제와 일상이 무너져 내린 어려운 상황에서 그림으로 위안을 주는 행복의 메시지를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복덩이 바나나-그림일기’를 통해 이웃들에게 행복 바이러스가 무한히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나를 가득 안고 있는 여인, 머리에 관처럼 쓰고 있는 여인, 미스터 트롯 입영웅이 수상하는 TV를 보며 바나나와 함께 즐거워하는 여인...

전시 주제처럼 작가의 일상을 그림일기로 보여주는 듯한 작품들에는 즐거움과



‘복덩이 바나나-그림일기’

자유로움 속 희망이 깃들여 있다.

“바나나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듯하다”는 작가는 “첫 전시에서 바나나가 추억이나 행복, 희망으로 기록했다면 이번 두 번째 전시에서는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복덩이를 한아름 안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 광주문예회관 ‘안방예술극장’ 재개

가장 사랑받았던 국악상설·예술단 공연 선정 유튜브 채널 ‘각 나오는 TV’ 서 주 3회 선행

광주문예예술회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돼 공연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라인 공연 콘텐츠 ‘안방예술극장’을 재개한다. ‘안방예술극장’은 수·목·토 주 3회 회관 유튜브 채널 ‘각 나오는 TV’를 통해 선보인다.

이번 ‘안방예술극장’은 그동안 가장 사랑받았던 시립예술단, 광주국악상설공연을 선정해 공개한다. 제작에는 8개 시립예술단이 참여하며, 공연실황에 해설과 영상 편집을 더해 새롭게 제작했다.

지난 16일에는 시립교향악단의 그림자극 ‘프로코피예프 피터와 늑대’가 공개됐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피터와 늑대’를 주제로 제작된 이번 공연은 그림자극과 연주를 함께 녹여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이다.

같은 날 시립합창단의 베토벤 ‘합창’도 함께 공개됐다. 인류 최대의 걸작으로 불리는 베토벤의 ‘합창’은 환희와 인류애의 메시지를 담은 곡이다. /오지현 기자

매주 수준 높은 국악을 선보이며 광주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국악상설공연은 매주 목·토요일 오후 5시에 만날 수 있다. 12개 단체의 각기 다른 국악 공연이 차례대로 공개된다.

첫 공연은 19일 시립국악관현악단의 공연으로 진행됐으며, ‘프롤타어’, ‘힘내요 광주시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사했다.

24일에는 루트머지, 26일에는 시립창극단이 온라인 국악 상설공연을 이어간다. 특히 오는 29일에는 회관 기획공연인 11시 음악산책 ‘정재형의 프롤타어’가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으로 기대를 모은다.

안방예술극장은 10월 31일까지 주 3회 정기적인 공연 영상으로 편성된다. 게시된 영상은 회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부분의 공연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편성표 및 더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예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신문!

전남매일

직장인 “흠뻑이 좋아요”...외식업계 울상

“인생에서 최대의 성공은 뭐냐”

전남농협 영호서 속천읍농장

농부도 걱정... 정부도 걱정... 구제책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6445-937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5431-4006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666-5888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  
 동부권본부 : T. 061-743-4200 / F. 743-4202